

商山金氏典書公派世譜序

吾金之有譜始於肅廟乙丑與庚寅兩年而乙則察訪潤璋氏之所編也庚則縣監慶資氏之所編而代序多錯分派或漏俱未成譜體是不足傳信矣辛未年間族大父僉樞公致龍氏博考往牒證訛補漏編輯五冊而往復于京中僉宗始謀剗剔積三年而至癸未秋告訖從茲以後九家之派系昭穆條條井井貫商姓金者雖三尺之童開卷而指之曰是某之派某之祖敦睦之心油然而生便一傳世之龜鑑豈非幸也哉至回甲之癸未有龍興譜而爲主事者之不明多有誤錯不足以爲信矣去甲子分先父老欲釐正其訛錯輪告京鄉無不嚮應時單可謂畢到而巧值丙寅之洋騷而止世代漸遠竟至杞獻莫徵則蔑識愚昧之子孫其父祖之諱啣猶難詳知而況五六世之昭穆乎以五六世之近而惟尚如此又況十餘世之遠乎若爾則錯引慶金氏天瑞之子月城君與我甫尹公同名者上系而遡至新羅之誤譜必復作於後矣豈不可懼可慎哉顧今形便九派之大同尚矣勿論雖一門之派譜昭詳以修家傳而人誦則可知眉蘇之路人其初弟兄且明姑范之親疎均是子孫奚獨大同而爲譜也哉

追叙

譜之編摩始知重且難也逐層成行無失昭穆可成譜體矣生卒配室勿漏詳載以明

後考而舊譜或有配室不錄處又有生卒全闕處此抑子孫者之不善草單而然歟其或校正人之疎忽他系而然耶今番則深徵前人之誤錯期欲詳審昭載得免來世之厚誚然時單之所來者倒錯無比難以考準故以弟爲兄者攷其生甲而釐之父祖易次者推其行列而正之然配室之不錄者無徵文矣依其單以載之且或有前後室錄來而不分聘奔故略整其序吾門之衰替貿貿莫此爲甚惟願諸族訓子課孫必以孝悌爲先次務文學俾無而墻之歎且免牛馬之走則孝悌之道亦在乎文學之中矣忍飢孜孜不淪於禽獸之域則吾門豈不自此爲庶幾乎哉

崇禎後壬子仲夏

甫尹公二十七代孫

基顯

謹序

商山金氏典書公派世譜序文

우리 金氏의 族譜는 李朝 肅宗 時 乙丑年과 庚寅年 兩年에 처음으로 編輯 되였는 데 乙丑年 것은 察訪 潤璋氏가 編輯한 것이고 庚寅年 것은 縣監 慶賚氏가 編輯한 것이나 모두가 代序가 錯簡 되였고 分派도 或漏落 되어서 다 같이 譜體를 갖추지 못하여 傳하지 못하였다가 辛未年 間에 族大夫 僉樞公 致龍氏가 널리 譜牒을 詳考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 補充하여 五冊을 編輯하는데 서울에 往復하면서 僉宗들과 相議하여 刊行을 始作한지 三年이 란 歲月을 겪고 癸未年 秋에 마치였으니 이로써 九派의 系統의 昭穆이 뚜렷하여 商山 金氏라 면 비록 三尺童子라도 族譜만 펴놓으면 이 집은 뒤집 派祖上이 란 것이 明確하였고 敦睦之心이 油然히 일어나서 한 世傳의 龜鑑이 되니 이어 多幸한 일 이 아니리오 그리하여 六十一年 間인 癸未年에 龍興 譜를 刊行하는 데 있어서 主管하는 者의 不分明한 것이 많았고 또 그 自體가 誤錯도 많아서 足히 信用할 수가 없었다가 甲子年에 先父老들께서 그 릇된 것과 誤錯된 것을 바로 잡고 자하여 輪告하니 京鄉의 吾金은 嚮應아니하는 이가 없었대 그리하여 그 時 收單이 畢至하였으나 不幸하기도 丙寅 洋擾를 當하여 中止되고 보니 世代는 漸遠하여 畢竟은 文獻조차 徵憑할 곳이 없어졌으니 無識하고 愚昧한 子孫들

은自己의父祖의諱字啣字마저分別못하거늘하물며五六世의昭穆이리요五六世의가까움도또한이러하거늘又況十餘世의먼것은어찌하리요이렇게되고보면錯覺하게쉬운것이있어니慶州金氏天瑞의아들月城君의이름이우리甫尹公鼻祖와同名인故로溯及해간다면誤譜가반드시後世에미칠것이어찌可懼可慎할일이아니겠는가至今形便으로서는九派의大同譜는말할나위도없이비록一門의派譜라도詳細히해서傳來해간다면사람마다다알게되어蘇東坡의兄弟가路上人이아니란것이밝혀질것이고范希文의親疎도均等이될것인즉子孫들이어찌홀로大同譜만을族譜라고하겠는가

追加하여말씀드린다면

族譜의編輯은實로重且難의事業이라段階를밟아서해나가는데昭穆됨을잃지말고譜體를이룩할것이고生卒配室도빠짐없이詳載해서後日의參考를期할것인즉舊譜에或配室의不錄된곳이있고또生卒이全部빠진데가있는것은子孫들이提出한初單이잘못된것인지아니면或校正을보는이의失手が아니겠는가今番에는깊이前人들의誤錯을바로잡아서詳審昭載하여來世의謫은꾸지람을免해야할것이다그러나時單의持參이倒錯無比해서考準치못한故로以弟爲兄은

生甲으로 바로 할 것이며 父祖의 易次等은 그 行列에 따라서 訂正하지만 配室의 不錄된 것은 徵憑할 곳도 없기 때문에 收單대로 登載하고 또 或前後室의 記錄이 妻妾의 不分明으로 된 것은 그 次例가 略整된 것이 다 우리 金門의 盛衰는 오직 訓子課孫하여 孝悌爲先하는데 달려 있고 다음은 學文에 힘써서 後日에 無識者들을 없애기 함에 있는 것이 다 한갓 牛馬의 달림을 免하게 하고 孝悌의 길로만 가는 것이 모두가 文學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굵주림을 참아가면 서로 도힘쓰고 힘써서 禽獸의 地境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즉 우리 金門의 隆盛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아니 하리오

崇禎(明나라의 當年號) 壬子仲夏에

甫尹公二十七代孫

基顯

謹序

跋(書末에 쓰는 글)

우리 金氏는 海東의 著名한 姓으로 全國 坊坊 谷谷에 巴 肅 判 判 같이 星 列 하여 鼻 祖 甫尹公의 得 貫 商山 하신 것이 마 치 千 枝 之 木 이 한 뿌리에서 나 왔고 萬 派 之 水 가 한 근 원에서 흐르는 것 같아서 名公 巨 卿의 輔 翼 廟 堂 하 셧고 또 長 德 鴻 匠 도 이 글 寫 羅 因 하여 繼 開 하 였은 즉 이 것은 宋나라 范 希 文(岳陽樓記를 지은 사람)의 이른바 祖 宗의 積 德으로 부터 百有餘年始發한 것이니 敢히 先代의 蔭 德이 烈 烈 하심을 來世의 後昆들에게 傳 傳 할 것을 昭 明하게 著 述 하 지 아니 하 리 요 그 리 하여 繼 述 할 길은 譜牒보다 더 할 것이 없다 우리 金氏의 族 譜는 있어 온 것이 몇 차례에 지나지 않지만 저 龍興 譜의 設 譜는 말 많은 訛 漏도 있었고 또 不 公 平한 事 件이 많았음으로 옛적에 우리 王考께서도 없지 않아 있도 다 오늘 의 派 譜를 닦는데 있어서는 昭 穆과 配 室 生 卒을 昭 詳히 登 載 했으나 徵 文이 없는 것은 時 單에 따 랐을 뿐 或 後 日에 푸 지 램 이 라 도 있 을 까 하여 두려움을 禁 止 못 하는 바 이 다

崇禎後壬子夏

甫尹公二十七代孫

基夏

謹跋

무릇宋朝의文明은程夫子가일찍말한바百年之家가없었다고하였음은興亡이  
 無常하고喪家失系가그리함을嘆息한것이나海東朝鮮의褊荒함과같은것이바  
 로이것이라하겠다우리甫尹公鼻祖께서得貫商山하신後孫들의文武兼職이  
 相繼되어顯著하면서甲族으로서자못千年에가깝게지내왔으니宋朝의無百年  
 之家에비해서어찌偉大하며壯하지않으리요우리金氏의族譜를갖게된것은옛  
 癸亥年과뒤틀癸亥年에一甲이不過할뿐이나數甲을經過하면서援古證今에많은  
 訛錯도있었다그러나至今의刑勢를들아보건데諸派의大同은어려운것같은故  
 로이에派譜를뒤아서前人들의脫漏됨을補訂하고또祖先들의蔭烈을著述하여  
 或이나不明不仁의罪를免할까하는바이다

崇禎後壬子仲夏에

甫尹公二十八代孫

斗鎮

謹跋

## 識(지)(기록하다)

譜冊 두卷은우리甫尹公以後三十世를承繼한編牒인즉族譜란것이어찌쉽사리  
 되는것이겠는가先烈을褒揚하는것은진실로 밝은處事이고後孫들을勸勉케하  
 는것은그敦睦을厚하게하는일이라하겠다슬프다先世의德業이 빛남은이미前  
 人들의所述에갓추엿고또今番의弁文을다한즉마치지봉위에석가래거는부질  
 없는일을더해갈것이아닌가한다自今以後로수많은子孫들이繼承해나가는데  
 先人들의美德을克述해서或是라도祖上들에대한辱됨이없이한然後에야可히  
 醴泉도根源이있고靈芝도뿌리가있듯이될것이니어찌可敬可懼치아니하리오  
 昔者에族大父新昌公은祖範文에서말씀하신바와같이十五世를傳해오면서宦  
 路가可謂奕奕해서屢代를墜落치않고傳來함은진실로鼻祖의忠孝를이어받은  
 것이니우리甫尹公子孫치고不忠不孝를한다면이는分明甫尹公子孫이아닐것  
 이다슬프도다族大父의當日之詔戒는實로오늘의先獲物이되여서感古傷今에  
 또어찌흠탄하지아니하리오今番의修譜는처음부터大同譜가아니고다만우리  
 派譜인즉다같이이것은멀지않고가까운것이다나같이못난사람도또한有子有  
 孫의處地에서마땅히校正의責任은限量이없지만僭妄스럽게敢히말씀을드리



오니 오직願하건데諸族들은 남의富貴를羨望하지 말고 各自의貧素에安分해서  
우러려서는祖先의忠孝를본받고 굽펴서는宗族의敦睦에힘쓴다면代代簪纓에  
반드시辱됨이없을것이니勉之慎之할지어다

崇禎後壬子仲夏에

甫尹公二十七代孫 基柱 謹識

## 重刊하면서序하다

宗族거리族譜를가지는것은옛적부터姓을가지면그本貫이있고族譜를마련하  
 려면그世代와子孫이記錄되어서父父로이여나가고祖上을이어받들어서始祖  
 에서부터이어나가는것이마치木之有根이라야枝葉이있게되고水之有源이라  
 야流波가있듯이子孫들이퍼져서四方으로分居하게됨에는族譜없이는장차무  
 엇으로써밝히리요생각컨데우리의族姓은멀리있는代序가꼭親해야될것이도  
 리어疎忽하게되는것은마치이것이길가에서만나는사람처럼되어버리는것인  
 즉이것이事勢의不得已한일이라하겠다그러나先祖의系統을밝히고宗族間의  
 敦和를펴는것은오직族譜아니고무엇이있으리요지난壬子年에多幸히派譜를  
 한것이戊辰年에와서다시또大同譜를이룩하였으나 벌써三十年이經過하였음  
 으로써歲月은寔遠하고昭穆은더욱不明하여滄桑의變世로장차杞宋의莫徵에  
 까지이르를까하야九派의合譜를이룩하려하였음은다만일과힘이미치지않은  
 바는아니엇지만所役하는사람도 많고 때가 또 옛적과 달라져 있을 뿐 아니라 南北  
 이懸隔하여 그大同譜가派譜의이룩함만 같지 못함이 있어서不得已하여老少諸  
 族이 처음으로提議하여昨秋에追慕齋宗會에서僉議를 얻어通告하니遠近이同

聲相應하여譜所를瞻慕齋에設置하고鳩財收單을極力蒐集한지幾月만에이老  
軀가都廳의重責을가지고나섰으나能히이役事에힘의보탬도없이始終勞力하  
는任員諸賢의誠意에만感謝드리며特히幹事분들의用意에있어서는擔其役節  
其用으로世系の來歷을明白히하여조금도遺漏의弊端도없이三卷의冊을編하  
는데겨우半年만에訖功하였으니이어찌吾族의一大幸事가아니리오무릇우리  
族譜는諸族들의孝悌로써根本을산고忠信으로써義를산아서길이百代의  
敦睦을누린다면이것은우리金門의先世의德을이룩함이요分派의先後를行함  
이리과遠近에이미舊序의備述을나타냄이되는故로다시더贅言을要치않으며  
이譜冊의纂述한뜻을略叙하는바이다

丁酉季秋에

甫尹公二十八代孫

昌鎭

謹序

## 序

宗族엔族譜가있고族譜엔分派가있는것은근祖上을높히고根本을重히여기는  
 系統序倫의一大經法이라하겠다이것이마치木之有根이有枝하고水之有源이  
 有派인지라一世의쌓임이數十百世도한사람에서부터始作되고百千萬人도本  
 源이尤遠하고支流가益衆한데서成就되는것인즉追遠合衆하는것이어찌重且  
 難이아니겠는가생각컨데우리先父老분께서깊이前人들의誤錯을徵明하여壬  
 子年の族譜를修成한것은이것이근典書公派世譜이다그後十七年만인戊辰年  
 에京鄉의諸族들이合意修譜한것이바로九派의大同譜이다戊辰年으로부터于  
 今三十餘年만에修譜에臨해보니年尊長老하신분이至今生存者幾稀하고年少  
 冠童과生子有孫이頗多하나위로는先行한忌日과墓所조차詳考할길이없고아  
 래로는後昆의生年配室조차모르고있으니萬若다시또몇해가더지낸다면上下  
 가誤錯되어서어찌하겠는가現下時異事變을불작시면大同譜란것은敢不生意  
 인즉一門의派譜程度는不可不重刊故로同派諸族들의老少가合意하여京鄉에  
 輪告하니無不向應이라時單이畢至에一門의派譜가昭詳히修選되어家傳人誦  
 하니派系가昭然하고敦睦之心이油然而남은다만한때의多幸뿐이아니라

百世의大幸이라하겠도다나같은拙劣한몸으로어찌敢히妄佞되게訛誤錯簡됨  
을바로잡고疑晦曖昧한點을釋明하오리까하오나先父老의遺志를回憶한다면  
비록片言隻字라도敢히疎忽히못함으로서所著한序와跋을冊의首尾에실어서  
追遠의精誠을略記하면서數行의글로後日의考證을期待할뿐이다

丁酉孟春에

甫尹公二十九代孫

演奎

謹序

## 序

族譜의 權度의 限界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要點은 根本을 밝히고 宗系를 所重히여  
 기는데 있는 것이니 대개 사람은 다 祖上이 있고 또 다 子孫이 있어서 그 타고난 바를  
 推本해 보고 위로는 姓을 가진 最初를 더듬어 보고 곁으로는 服이 없는 뒤로 傍推해  
 봐서 詳細히 記載치 아니한다면 어찌 系代의 次例와 親疎等을 分辨해서 傳世의 訓  
 을 산것는가 程夫子의 말씀에 天下를 管攝할 마음으로 蘇明允引하여서 孝悌의 마  
 음으로 勸하여 힘써 觀記하면 上世의 마음을 미루어 본 것이 各自마음의 所由로 發  
 한 것이며 愛敬之本과 敦睦之道가 行해 질 것인즉 그 關係됨을 돌아 보건데 이어찌  
 重且大함이 아니라 요우리 金氏姓은 新羅國姓이기는 하나 世系가 未詳하다 가 甫  
 尹公鼻祖의 始貫商山하심으로부터 派分枝列되어서 十一世이신 典書公에 至及  
 하여서는 九派로 綿歷되어서 于今子孫이 八域에 散在한者 無慮萬千戶에 達하였  
 고 典書公은 第二派로서 곧 우리 派의 始祖이시다 往昔에 三四次大同譜를 하였지  
 만은 世劫이 累變하고 地圖가 分裂되고 南北이 隔絶하니 大同譜는 勢難이라 各自  
 派譜로써 所分의 祖上을 찾고 他日에 合同하기로 僉位가 詢功訖하니 무릇 三卷의  
 冊子였다 萬若에 僉族의 勞苦와 誠意가 없었던들 어찌 같은 巨事를 成遂했겠던

가 못난나로서는末尾에 一言을 敢히 붙치는 것이 쓸데 없는 잔소리 같기는 합니다만은古今으로名門右族들은祖上の累積된功德을 힘입어서基本을 닦아왔고子孫들의繁昌한것은마치물의源遠과나무의根深에依하여流波漫漫하고枝葉茂하여自然히不期然而然한것이니在昔의麗代祖先의赫赫하신勳業이當世에照耀해서歷史에실리고我朝에들어와서時時로빛이나고寂寞을깨트려왔었다그러나李朝中葉에와서는宦路의繼絶이無常했고零替가無比하였으니이어찌슬퍼하지아니하였으리요생각이여기에미치니恨스러운일은祖先이위에서는隆盛하여家庭과國家를크게빛냈으나子孫들이替役해서名聲이墮落되었으니비록門運의盛衰는있다손치더라도先業을充分히닦지못한데서온結果이라어찌寒心치않으리요오직우리諸族들은各自勉勵하여所思敦睦하여張大히나갈지어다그리고父詔其子하고兄詔其弟하여入孝出弟의餘暇를얻어學文을닦고事業을繼作해서立身揚名의길을피한다면吾祖의昭靈이어찌豫悅치아니하시리요冥冥之中에서陰佑가계시리라願컨데우리들은服盡情盡하여서로보기를路上之人으로여겨왔던사람도至今은그한사람이儼然히譜冊을피본다면分身의처음을생각지도못하고愀然히起하여油然히發하리니또어찌區區하게勸誘로

## 商山金氏典書公派世譜

引長하리요重刊이 오랜지라事役의顛末과前人の述叙가 갖추었음은諸賢들이  
 詳細히撰하섯는데무엇이屋上添架의不必要함을 더하리요

丁酉菊秋에

甫尹公二十八代孫

疇鎮

謹序



우리 金氏는 甫尹公으로부터 十一世에 傳해와서 九派로 分派되니 典書公은 第二派先祖이시다 典書公으로부터 至今까지 傳해옴은 二十有餘世인데 子孫이 蕃延하여 그 數가 億을 論할수 없을 程度로 比喻하건데 一座의 山이 散作千峰萬嶽하고 一泉의 水가 分作千派萬流하니 山을 가리켜 물이면 아모 山의 山脈이라고 말할 것이며 물을 가리켜 물이면 어디의 물이라고 할 것인則 又況사람이 리요 우리 金氏를 가리켜 물어 보면 甫尹公의 後裔라 할 것이니 甫尹公의 後로는 名公巨卿과 弘儒碩德하신 분들의 人物이 마치 山의 崇華와 도 같았고 물의 江漢과 도 같아서 또 分함이 오래이면 必合하고 合함이 오래이면 必分함은 理의 常例이다 우리 金氏는 中古에 九派가 合하여 大同譜를 이룩했고 各分派에서는 派譜를 刊行한 것이 累次에 잇었으나 그 歷年을 尚考한즉 大同譜한지도 於焉 三十年만이고 派譜한지는 五十年이 가까왔다 옛말씀에 三十年이 一世가 된다 하고 또 한말하기를 平家에서는 五代孫을 본다고 하니 五十年之間에 人事의 飜覆이 어찌했던가 至今의 世上 變遷을 볼 작시면 世道의 零替와 地域의 改變으로 大同譜의 生意는 不可하고 九派中에서 선 各派의 譜牒으로 그 치는 것이 非一非再하였다 우리 商山 金氏가 尚州에

居住하면서 어찌 他人들의 뒤져서야 되겠는지 昨年 가을에 譜刊發議에서 僉宗의 讚成을 얻어서 輪告京鄉하니 時單이 還至하고 舊日入譜者와 到今流漏者가 不  
少하였고 其他는 滄桑累變으로 不得已하였다 이에 登梓한지 一朔有餘에 訖功하  
니 臨役幹事들의 充分한 勞苦에 感謝하며 閱覽譜編하니 舊日入譜者 老少存沒이  
相半이며 今日入譜者 冠童이 比前百倍라 追感先事하고 俯視後昆하니 悲喜兼之  
나 勢亦奈何오다 만願하오니 僉宗은 우리 甫尹公만 드시기를 百川의 물이 東海로  
들어가고 千山이 祖峯을 높히듯이 한다면 追遠의 精誠를 마음에서 잇으리요

丁酉季秋에

甫尹公三十代孫

殷植

謹識

우리 金氏는 新羅王族의 姓으로 甫尹公이 始祖 商山하사 出仕 麗朝하시어 本尚州에 子孫이 仍傳하여 官職이 不絶로 三世 翰林이 繼續되고 後人이 四世에 比하여 太尉가 麗末에 까지 이르렀으며 亞卿이 同堂에서 나고 元帥가 三兄弟에 連함이요 十一世에 이르러서는 九派로 分派가 될대에 우리 典書公은 第二派로 派出하셧다 麗運이 衰亡함에 있어서 致仕不朝하신 古人休退의 義節을 誇示하여 왔다 李朝에 들어와서 國運이 革新되어 家世가 相系하여 義可出致하였으니 或은 外職으로 牧伯에 或은 內職으로 宰相列에 까지 이르렀으니 名聲은 滿堂하고 子孫은 郡縣에 遍滿하였다 壬亂을 겪을 때에는 或은 倡義殉國하였고 或은 隱居修德하여 出處는 비록 다른나 節義는 同一하였다 또 한歲久年深하면 宗族을 잊기가 쉽고 宗族이 많아지면 合하기가 어려우니 잊지 않고 合하기 쉬운 일은 族譜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한 故로서 龍興譜와 癸未譜等은 옛 先父老분들의 賢明하신 勞苦와 智力의 結果라 하겠으며 이것은 우리 門中の 百世의 龜鑑이라 할 것이다 近古의 先父老분들은 더욱 오래 되면 더욱 잊을까 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壬子年에 修譜를 一年만에 告訖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 典書公派의 世譜이다 그 뒤 十二年만인 甲

子年에 京鄉間의 僉族들이 合意하여 大同譜를 訂이 始作한지 五年만에 訖功하니  
 이어 卞重且難함이 아니라 壬子年으로부터 至今까지 五十年間에 모든 變動이  
 얼마나 되었는지 不可不重刊이었지만 때가 마침은 亡國之運을 만나서 未能合譜  
 하고 昨年十月에 우리 典書公派 一門만 瞻慕齋에서 會合結議한 後修單이 一年이  
 나 遲延되어 至今에 겨우 登梓하게 되나 中系以上은 舊譜에 依하여 記錄하고 下系  
 에 있어서 는 時單에 따라 記錄하고 보니 子孫들이 倍나 增加하여 그 數가 많기만 한  
 즉 우리 甫尹公鼻祖로부터 典書公의 餘蔭의 綿綿함이여

丁酉菊秋에

甫尹公二十九代孫

演龍

謹識

跋(書末에 쓰는序)

무릇譜란 뜻은 넓은 文書라는 뜻인데 宗族을 普合하여 譜牒을 만들면 族譜가 되는 것이다 大概 追先睦族하는 것은 士大夫家에서 修譜함이 첫째라 하겠다 옛적 君子라면 修譜하지 않고는 不孝가 되는 것이다 생각컨대 우리 族譜는 乙丑年 庚寅年으로 부터 壬子 戊辰에 이르기까지 吾宗의 諸先輩께서 或은 創刊도 하셨고 或은 重刊도 하셨다 그러나 錯漏됨이 不無하였고 그리하여서 有異를 詳悉하게 하여 譜牒을 함이니 祖先들의 用意하심이 어찌 그동안 容易하심이 있었으리요 다만 恨스러운 일이라면 歲月이 오래되고 年代가 寢遠해가는 동안 這間의 死喪生育婚嫁仕宦等등이 장차 文獻의 徵明할 수도 없이 되어 버릴까 하여 오늘의 續刊의 論議가 나온 것이다 世上의 가는 길에는 岐路도 많고 地域은 限度가 있는 것이라서 大同編譜는 얻지 못하고 一方의 派譜로만 하게 되었으니 圓滿한 正義로 따진다면 缺意된 點이 없지 않는 양이나 萬若九派子孫으로 하여금 各其派譜를 修刊하고 그 派끼리의 分派를 해본다면 某祖로부터 會合해서 參考한다면 비록 各各 다르기는 하지만 大同譜를 修刊하는 데는 큰 害는 없을 것이다 슬프도다 옛적 仁人君子는 이로써 꼭 重刊을 하여 姓氏를 바꾸고 祖上의 系統을 따지고 譜系를 撰輯하여 그 次例에 따라 위로는 父

祖의祠堂을이어받고尊尊之道를다하도록할것이며아래로는宗族을슴하고親  
 親之義를敦篤히한다면내한사람의天屬之爰로來世의後孫들에게懇切히傳케  
 하고百世宗盟之誼로써길가에서만난사람처럼아니한다면이것이어찌大同團  
 合의義가아니리오이것이바로程夫子의이른바天下人心을管攝하여宗族의厚  
 朴한風俗을건우어준다면사람마다그根本을잊지않으리라오직우리諸族들은  
 어찌勉勵치아니하시리오派譜가이미成冊이된것이즉僉宗께서는그事實을나  
 로하여금알려달라고하실때엔내스스로의劣拙함을돌아보고妄佞된言辭를함  
 부로하오리까지난壬子年의刊役에도나의曾祖父님의所述도계셨고해서今番  
 의設役後에不肖가勤勞之役을맡기는했으나私情의所在로凡他에比할다름도  
 없이僭越됨도생각치않고敢히卷末에跋하나이다

丁酉重陽에

甫尹公三十代孫

勳植

謹跋

重刊하면서序하다

國家에國史가있고氏族과家門에族譜가있는것은同一한事理로서國家는그歷代의系統과治績의善惡을記傳하여그國家民族의發展을圖謀한史記이며族譜는한氏族과한家門의根源과系譜를記錄하고또祖先의盛德과偉業을記傳하여子孫으로서追慕繼承하여爲先之道를다하고蕃延하는子孫間의昭穆을明確케하여族誼를敦篤케하여서將來의發展을圖謀함이그目的이었으나族譜는國史에比하여發展이微微하였다族譜의始初는中國北宋時代의文人이었던蘇東派의蘇氏家を創始로하나그以前春秋時代齊나라에벌씨姓氏系譜를主로하는南史라는書가있었고우리나라는約五百年前부터安東權氏와文化柳氏의創譜가있었으나그外는大概가李朝肅宗時代에族譜를創設하였으나이것亦是特殊階級の獨占이었고一般的으로는參與치못한사람이 많았다그러나近者에는一般的으로與件이進歩됨에따라族譜의熱이旺盛하여 많이參與케되었음은바람직한일이나族譜의源理인爲先崇祖의思想과孝悌敬愛의行動에對한觀念이不足함은實로遺憾이라아니할수없다自古로一哥親族은百代之親이라고하였고現在에도피는물보다진하다고흔히들말하고있는바이것이곧血統을말하는것이

니 곧百代之親이며族譜의源理이다그러나우리는恒常同祖의孫으로서兄弟의蕃延이라는것을念頭에두고一致團結하여吾門의發展을圖謀하여가기를顯望不已하는바이다

今般派譜重刊은各處齋舍의重修및其他여러가지事業을併行하는可謂多目的의事業으로서于先譜事는겨우印刷에至였으나餘分事業은아직着手에도未及하여前道가遼遠하니任員諸位는初志一貫하여有終의美를거둘때까지最善을다하여주기를懇望하는바이며 不肖余는本是菲才淺識으로莫重한都廳의所任을 諸位만을믿고馬尾蠅으로出發한點寬容을빌며略記如右

追而

歷代派譜의序跋記文이純漢文으로記述되어있어서子孫中解讀치 못하는者許多함으로恒常心中에未洽한感이不無하던中大邱居族兄演權氏가國漢文으로解譯하여왔는바其文意가原文에違背됨이없는完璧한譯文임으로同時印刷編綴하였음

一九八三年癸亥八月上澣

甫尹公二十九代孫

演玉

謹序



聞慶郡永順面所在典書公齋舍를爲始하여尙州郡中東面梧上及洛東面大思洞  
 齋舍가風磨雨洗와管理疎忽로極度로頽廢하여大思洞齋舍는倒伏의危期에至  
 하였고其外各處도當初부터坦墻이未備하여外觀上으로나管理上에支障이莫  
 甚하였고且聞慶典書公祭典位土畚이近間周圍山林의茂盛으로因하여近來의  
 水源이枯渴杜絶되어全然廢畚이되었으니現狀대로放置하면不過幾年에齋舍  
 는倒壞至境이고또한典書公墓祀의方道가漠然함으로齋舍의重修와位土畚水  
 利施設(간정설치)補完策을論議코져 去一九八二年十一月項에 大思洞齋舍  
 에宗會를開催하였던바各處에서代表二十餘人이會合하여論議하였으나吾門  
 이本是貧寒함으로特志出捐者가無하니不得已各個人別로分担據出하여야하  
 는바그分担方途와收金方法이漠然하여不可能하니此際에派譜를重刊하여譜  
 冊을各其分持하고所要經費를分担據出하는것이最善의方途라고發議하여滿  
 場一致로可決하였던바回顧하면吾派의派譜刊行과大同譜의修譜期間이不過  
 三十年으로若干의短期의嫌은不無하나其後生死存亡의變動이頗多할뿐아니  
 라先譜時에漏落者가 많고近者世態의風潮에따라젊은世帶가都市各處로分散

移住하여譜冊을所持치 못한者가 많아漸次族譜의觀念이解弛하여져서祖先에對한追慕의思想이冷脚되고族內間의昭穆이素昧하여族誼를忘脚하여同祖之孫으로彼此路上行人과같이相對하고서로牛馬之走를不免하면어찌寒心할바아니겠는가그러니此際에우리는各自一世帶마다一秩式備置하고恒時로閱覽熟讀하여未詳之處는父老先輩에同疑學習하여祖先의美德과高行을崇仰追慕하여繼承에힘쓰고族誼를더욱敦篤케하면實로派譜重刊事業이一舉兩得之事가될것이니어찌아름답지않겠는가

또한今番譜役に從事한諸位는各自多忙함을不拘하고또한不足한財政과많은隘路를克服하고盡心竭力하여短期에譜役을完遂하였음은亦是一大盛事라이에높이고그誠意를讚揚하는바이라不肖余는越自庚申으로數年間病蟄中으로서不得參役하여罪恨莫甚而荒辭抄文으로敢히這間의經過와所見所聞한것을略記如右하여以供後覽者之考焉

一九八三年癸亥八月上澣

甫尹公二十九代孫

演霽

識

今番派譜重刊에對하여這間經過 및 諸般事項은 먼저 여러 어른분들께서 詳細히  
 序文에 記載하였기로 나는 蛇足重言을 避하고 一末의 所感을 記하는 바當初收單  
 의 期限을 三月末까지로 定하였으나 期日이 經過하고 夏節이 되어 도 送單이 如意  
 치않어 更次書面 또는 人便으로 通知督促을 하였으나 亦是一部 地方에서는 全然  
 消息이 無함으로 不得已 一次 巡訪할 計劃으로 族大父演玉氏 및 族叔勳植氏와 同  
 伴하여 慶南釜山及 忠北秋風嶺을 往訪하였으나 亦是 離散不在 不明으로 若干名  
 以外는 相逢치 못하고 歸還하였다 이것이 莫非各其 生活戰線에 회말려 離散한 關  
 係도 있겠지만은 一便思之하면 亦是 世態의 退化로 一年一次 祖先의 墓奠에도 不  
 參하여 爲先의 思想이 極度로 解弛하여서로 消息조차 杜絶되어 結局路上 行人과  
 같이 된 까닭이니 어찌 慨歎할 바가 아니겠는가 幾個人의 漏落者를 爲하여 何待歲  
 月로 延期遲延할 수 없는 바이므로 收單을 終結짓기로 定하고 去七月二十日 頃에  
 族大父演玉氏 및 基穢氏와 族叔弘植氏 및 勳植氏가 吾家에 會合하여 約月餘間 收  
 單을 整理하여 印刷에 付하였던 바 收單未來者에 對하여는 遺憾이 아닐 수 없으나  
 不得已한 所致이고 故意가 아닌 點寬恕를 빌며 略記如右云

一九八三年癸亥八月下澣

甫尹公三十一代孫

炳喆

謹跋

商山金氏世譜 首編

商山尚州別名隸慶尚道本沙伐國新羅沾解王取以為州真興王  
改上洛郡高麗初復改尚州 李氏朝因之置牧使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金需

김수

高麗甫尹○按庚譜諱霽官侍中未知何攷○公之墓所歲久無徵故檀紀四二九五年壬寅設壇建齋于尚州邑新鳳里九月山下酉坐原每年三月十五日享祀焉

子 韜

도

甫尹○庚譜大將

子 湜

식

侍中諡貞靖公

子 希逸

희일

侍中諡清平公○按辛革有第二子文躬侍中而無子孫舊譜不載故今不錄

子 文道

문도

侍講院翰林學士

子 匪躬

비궁

門下贊成事壁上功臣商山府院君

子 傑

걸

進士

子 致和

치화

匡靖大夫政堂文學僉議評理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庚譜公有四子登科三子无后

子 致遠

치원

金紫光祿大夫門下判事侍中公之墓所歲久無徵故今已酉冬諸孫協心謀議設壇于長城郡東化面將軍峰左麓享祀焉

子 鏡

경

平章事

子 璿

子 侶

子 瑤

子 道